

소니코리아

4K 60P 재생이 가능한 홈 씨어터 프로젝터 시연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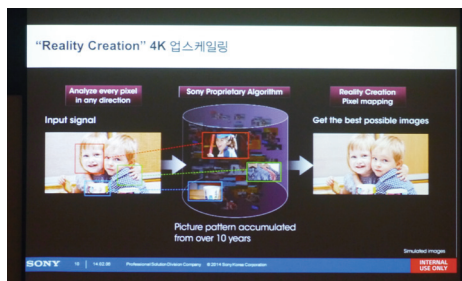
유완석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 대리는 이번에 선보이는 프로젝터 제품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특징으로 새롭게 채택된 “4K 네이티브 SXRD” 패널은 깊은 블랙 표현과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어 내며, “Reality Creation” 이라 하여 2K나 Blu-ray의 콘텐츠를 4K로 업스케일해 이미지를 재현한다. 또한, “Masterd in 4K” 기술을 통해 다운 컨버전된 4K 마스터 파일을 4K 업스케일하여 원본에 충실한 재현을 통해 네이티브 4K를 구현할 수 있다. HDMI 2.0을 통해 4K 60P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것 역시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기능으로,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콘텐츠 재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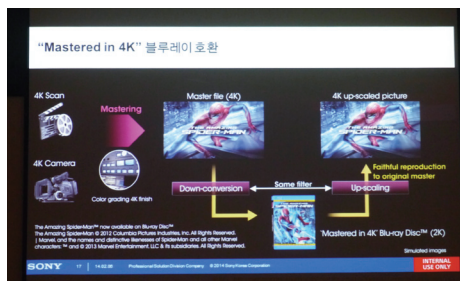
소니의 4K 전체 라인업



4K 프로젝터 핵심기술



2K → 4K 영상 콘텐츠를 업스케일링하는 기술인 Reality Creation



블루레이 용량의 한계로 다운컨버팅된 4K 콘텐츠를 복원하는 "Mastered in 4K"

4K 60p 지원

4K Resolution	Frame rate	VPL-VW1100ES	VPL-VW500ES
3840 x 2160	24p	Y	Y
	25p	Y	Y
	30p	Y	Y
	50p	Y (PCOG 4:2:0 / 8:8 Mbps)	Y (PCOG 4:2:0 / 8:8 Mbps)
	60p	Y (PCOG 4:2:0 / 8:8 Mbps)	Y (PCOG 4:2:0 / 8:8 Mbps)
4096 x 2160	24p	Y	Y
	25p	Y	Y
	30p	Y	Y
	50p	Y (PCOG 4:2:0 / 8:8 Mbps)	Y (PCOG 4:2:0 / 8:8 Mbps)
	60p	Y (PCOG 4:2:0 / 8:8 Mbps)	Y (PCOG 4:2:0 / 8:8 Mbps)

4K 60P 지원이 가능



VPL-VW1100ES(좌)/VPL-VW500ES(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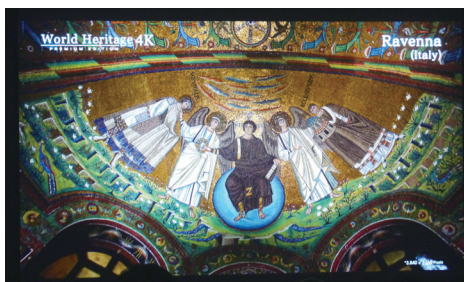
양우진 소니코리아 부장은 이어 본격적인 4K 시연을 진행하며, 기존 2K에서는 화면과 3M 정도 떨어진 곳이 감상하기 가장 좋은 반면, 4K 영상은 넓어진 시야와 향상된 화질로 1.5M 거리에서 최적의 영상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실제적으로 2K 대비 어떤 부분이 향상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시연장에서는 150인치 2.35:1, 16:9의 스크린 2개를 콘텐츠의 화면비에 맞도록 설정을 바꿔가며 4K 영상을 재생했다. 우선, VPL-VW500ES로 2.35:1의 2K 24p 소스인 영화 에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영상하며, 2K 원본과 Reality Creation을 사용한 4K 업스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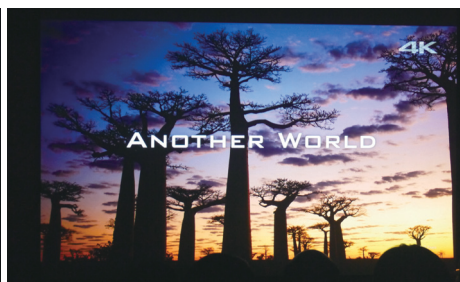
After Earth 시연 장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연 장면



TBS의 World Heritage 4K 시연 장면



Another World시연 장면

일링 영상의 화질을 비교했다. 2K 정지화면을 4K로 변화하니 쉽게 사른 효과를 준 것처럼 영상의 디테일이 더욱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니가 제작한 최초의 4K 콘텐츠인 Another World를 16:9의 스케일로 시연하였고, TBS의 World Heritage 4K 이태리 편과 호주의 타임랩스 콘텐츠, 소니의 F65로 촬영된 After Earth 등으로 4K 화질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VPL-VW500ES의 상위 기종이며, 100만대 1의 명암비를 갖는 VPL-VW1100ES로 바뀌 마스터링된 4K 영상을 네이티브 4K로 업스케일하여 2.35:1로 영화 토탈리콜을 시연했고, Another World 2와 TBS World Heritage 캐나다 편의 화질을 감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K 60P 콘텐츠 시연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선수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재생되어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이 날 시연회를 통해 소니가 가진 최신의 4K 구현 기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4K 화질을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멀



양우진 부장은 시연회가 끝나고 규격 및 재원 등 4K 프로젝트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다



4K 콘텐츠 재생에 사용된 SR-R1000
4K/2K/HD 메모리저장데크



Blu-ray Player와 야마하 프리앰프 CX-A5000



극장과 같은 사운드를 선사한
MX-A5000 야마하 파워앰프

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 선보인 프로젝터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니의 최고급 4K 홈 씨어터 프로젝트 VPL-VW1100ES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VPL-VW1100ES는 2011년 소니가 선보였던 세계 최초 4K 홈프로젝터 VPL-VW1000ES의 후속 제품으로, 디지털 시네마 배포 표준(DCI: Digital Cinema Initiatives)인 4,096×2,160 해상도를 지원하며, 이전 소니 홈 프로젝트 제품들 대비 2배 가까이 밝은 2,000 안시 루멘(ANSI Lumen)의 밝기를 제공한다. 60"~300" 크기의 스크린으로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4K 60P 재생을 위해 HDMI 2.0을 지원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화질과 영상을 보여준다.

VPL-VW1100ES에 적용된 4K SXRD 패널은 소니의 4K 기술을 활용하여 특별히 개발된 것으로, 픽셀을 전자적으로 변환하지 않고 네이티브 4K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4K 영상을 제공한다. 깊이 있는 색을 구현해, 소니의 어드밴스드 아이리스 3(Advanced Iris3) 기술을 결합할 경우 최대 1,000,000:1의 동적 명암비를 제공해 최상의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다.

또한 최적화된 4K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전용 ARC-F(All-Range Crisp Focus) 렌즈와 빠른 움직임의 영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모션플로우(Motionflow) 기능을 탑재하여 4K 콘텐츠를 보다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영상 위치 메모리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2.35:1과 1.78:1 등의 화면비로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소니 고유의 알고리즘이 적용된 혁신적인 '리얼리티 크리에이션 4K 업스케일(Reality Creation 4K Upscale)' 기술은 1080p 풀HD 콘텐츠의 화질을 크게 개선해준다. 특히 'Mastered in 4K' 블루레이 디스크의 경우 최상의 호환성을 자랑한다.

4K로 스캔 혹은 촬영 후 4K로 마스터링한 영상을 블루레이 디스크에 풀HD 화질로 저장하는 다운스케일 기술과 동일한 필터를 적용해 4K로 업스케일하여 네이티브 4K에 근접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기존 풀HD, 3D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4K로 업스케일하여 감상할 수 있다.

실속형 4K 홈프로젝터 VPL-VW500ES



실속형 4K 홈프로젝터 VPL-VW500ES는 VPL-VW1100ES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자랑하며, 전용으로 개발된 렌즈와 실용적인 흡배기 구조를 적용하여 몸집을 확 줄였다. 소니코리아는 VPL-VW500ES를 통해 4K 프로젝트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조건에서 4K 프로젝트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명암비와 휘도 등 몇 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도 대화면의 4K 영상을 경험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캐논, Wi-Fi 통한 셀프 촬영용 캠코더 오디션캠 X 출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대표이사 강동환)이 와이파이 기능의 탑재를 통해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진 신개념 핸드프리 오디션캠 X(모델명 VIXIA mini X)를 출시했다.

오디션캠 X는 오디션 프로그램, 유튜브, SNS를 통해 유행하는 '셀프(Self) 영상'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으로 지난해 8월 출시되어 화제를 모았던 오디션캠의 후속 제품이다. 실제로 오디션캠은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Mnet의 10부작 서바이벌 오디션 '후 이즈 넥스트:윈(WHO IS NEXT: WIN)'에 참가자들의 안무 연습 등에 활용되면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신제품 오디션캠 X는 고품질의 음성 녹음과 함께 장시간 촬영이 가능해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상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무게는 240g으로 가볍게 휴대할 수 있다.

고품질의 영상에 생생한 음성까지 촬영 가능

오디션캠 X는 대형 스테레오 마이크를 탑재해 노이즈를 이전 모델의 약 1/6 수준으로 감소시켜 고품질의 음성 녹음이 가능해졌다. 또한 오디오 장면 선택 기능에 축제, 회의 모드가 추가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수동으로 오디오 입력 레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마이크 단자를 통해 별도의 마이크를 부착해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약 1,200만 화소의 CMOS 센서와 DIGIC DV4 이미지 프로세서를 탑재해 풀 HD 동영상과 고화질 사진 촬영이 특징이다.

와이파이도 탑재한 스마트 오디션캠 X

오디션캠 X는 내장 와이파이를 탑재해 결과물을 손쉽게 스마트폰, PC에 저장하여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업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카메라 액세스 플러스(Camera Access plus)'를 사용하면 Wi-Fi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해 모니터하거나 원격으로 촬영할 수 있다.

자유로운 촬영 스타일을 구현

오디션캠 X는 약 170도 화각의 초광각 렌즈와 전면 약 80도, 후면 약 90도까지 회전 가능한 2.7형 LCD를 갖췄다. 초광각 렌즈는 동영상 촬영 시 약 160도(스틸 촬영 시 약 170도) 화각의 촬영이 가능하며, 렌즈 특성상 어안 렌즈로 촬영한 영상과 같은 개성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파워샷 G1 X Mark II를 포함한 컴팩트 카메라 6종 발표



캐논은 지난 2월 13일 2014년 상반기 신제품 컴팩트 카메라 6종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1.5형의 대형 이미지 센서와 고성능의 광학 5배 줌 렌즈를 탑재한 '파워샷 G1 X Mark II'와 광학 30배 줌 렌즈를 담은 '파워샷 SX700 HS', '파워샷 N100', 캐논 유일의 방수카메라인 '파워샷 D30', 쉽고 간편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컴팩트 카메라 익서스 265 HS, 익서스 145으로 모두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Beyond Perfect, '파워샷 G1 X Mark II'

파워샷 G1 X Mark II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간 캐논이 플래그십 제품 라인업에만 출시 순서대로 붙여온 'Mark' 넘버가 추가되어 있는데, EOS 5D Mark II, EOS 5D Mark III, EOS 1Ds Mark II, EOS 1Ds Mark III와 같이 'Mark'가 붙은 제품은 기록적인 판매와 캐논의 대표 제품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 이번 파워샷 G1에서도 성능과 판매를 향상시키는 캐논만의 자부심이 드러나 제품으로 볼 수 있다.

파워샷 G1 X Mark II는 캐논이 자체 개발한 1.5형(약 18.7mm x 12.5mm) 대형 이미지센서를 탑재해 뛰어난 해상력과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구현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 센서인 1/1.7형 보다 약 5.7배 크고 고사양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에 사용되는 APS-C 타입 이미지 센서 크기에도 버금가는 대형 센서이다.

또한, 캐논의 6세대 영상처리 엔진 'DIGIC 6'가 탑재되어 고감도에서의 노이즈도 대폭 줄었으며 이미지 처리 속도도 크게 향상되어 더욱 선명한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최대 31점의 AF 포인트를 지원해 AF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사진 전송 및 공유 기능도 새롭게 탑재했다. '원터치 스마트폰 버튼'을 활용하면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캐논 클라우드 서비스 'Canon Image Gateway'에 촬영한 사진을 동기화할 수 있으며, 카메라를 가방에 넣은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조작해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클라우드로 업로드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리무선통신(NFC)기능을 탑재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G1 X Mark II를 터치하면 'Canon Camera Window' (캐논 카메라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작동된다. '원터치 스마트폰 버튼'과 NFC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리모트 촬영 기능도 제공한다.

(주)디지베이스

ELEMENTAL 4K 60P HEVC 실시간 인코더 세미나 개최



디지베이스가 지난 1월 24일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에서 방송분야 고객을 위한 ELEMENTAL 4K 60P HEVC 실시간 인코더를 소개하고,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엘리멘탈 테크놀로지(이하 엘리멘탈)의 인코더는 세계 최초로 라이브 4K 60P를 지원,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해 본격적인 4K UHD 방송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강대영 디지베이스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엘리멘탈 사에 대한 소개와 제품 소개, 4K HEVC 데모 시연으로 진행되어, 30P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4K 60P의 영상이 국내 최초로 시연되었다. 엘리멘탈 사는 2006년 미국 오리곤주에서 설립된 방송장비 전문업체로 2013년 1월 H.265 코덱을 처음 선보인 이후, 2013년 NAB을 거쳐 IBC에서는 10bit 4K HEVC 비디오 처리시스템을 전시했다. 또한, 지난 10월 오사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라이브 4K 30P HEVC를 선보였고, 12월에는 런던의 특별 행사에서 역시 세계최초로 라이브 4K 60P HEVC 스트리밍 기술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시연은 MPEG-2로 전송되는 스포츠 콘텐츠에서 4K 60P AVC 비디오 데이터를 인코더에서 4K 60P HEVC로 전송하여, PC를 기반으로 하는 디코더로 전송, 최종적으로 84인치 4K TV에 상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Full HD 해상도의 4배를 자랑하는 차세대 영상기술인 4K UHD(3840×2160)는 8bit를 넘어 10bit의 색재현과 30P를 넘어 초당 60P의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 구현을 목표로 한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도 실험방송을 통해 이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엘리멘탈 사에서 UHD 방송기술의 큰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엘리멘탈 사는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과 NAB, 브라질 월드컵을 거쳐 2014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4K 시대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LEMENTAL LIVE SPECIFICATIONS	
Feature	Description
Input formats	• IP, ASI, MPEG-TS • HD-SDI/SDI, HDMI: Standard camera formats
Output formats	• Stream: Adobe RTMP & HDS, Windows, Smooth Streaming, Apple HTTP Adaptive, UDP • Codec: H.264, VC-1, MPEG-2, Apple ProRes • Archive File: MP4, MPEG, ASF, F4V, WMV, RAW
Video processing (GPU accelerated)	• Scaling, logo insertion, noise reduction, aspect ratio, color, chroma conversion, temporal frame rate conversion, motion adaptive deinterlacing, deblocking, scene detection
Command and control	• Web-based interface • Elemental XML REST-based API
Monitoring	• Event and stream status, alarming, metrics, graphing, SNMP
I/O Interfaces	• HD-SDI, HDMI, ASI, Gigabit Ethernet
Input/output resolution	• 96 x 96 to 4k x 2k
Output streams	• Up to twelve 1080p or twenty-four 720p (HD) • Up to forty-eight 480p (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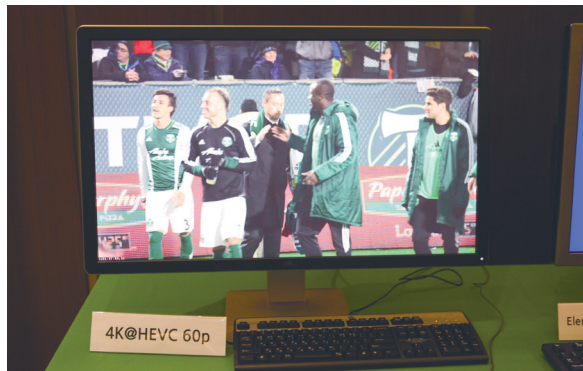


GENERAL 4K INFORMATION		
• Ultra HD - 3840x2160 (progressive only) • Most content is 24/25 fps; standard allows up to 120 fps • RED/Panasonic/Sony and other cameras 4k capable		
Display Connections		
Connection	Version	Max 4K frame rate
DVI	Dual link	30 fps (possibly higher)
HDMI	1.4	30 fps
HDMI	2.0 (future)	60 fps
DisplayPort	1.2	60 fps

HEVC OPERATING POINTS	
• HEVC Main and Main 10 Profile compliant with HM 10.1	• Main and High Tier • Up to Level 5.1 • High bitrate (>25 Mbps) testing underway
• Characteristics	• Progressive only; standard does not define interlaced support • Elementary and transport streams, MP4 • No definition yet for HLS, HDS, Smooth containers • MPEG-DASH support available Q4 2013. • HEVC defines 4:2:0 chroma sampling only • Low bitrate targets do not require 4:2:2 • This may change in light of 4K adoption • 8- and 10-bit color depth

세미나 관련
발표 자료들

ELEMENTAL 4K 60P HEVC 실시간 인코더의 특징으로는 H.265를 탑재해 기존 H.264 대비 50%의 압축률을 자랑하며, 하드웨어적인 QuadGPU 가속을 지원해 기존 CPU 대비 인코딩 처리속도를 40% 이상 향상시켰다. Pre Processing, Post Processing 기능을 통해 작업 전 후 파일 처리를 지원하며, 1G~10G 및 Fibre 등 다양한 이더넷 인터페이스 연결을 지원한다. 이밖에 Audio Mux 기능을 통해 다양한 오디오 채널과 결합할 수 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중 끊김 없이 다른 채널의 Input Source or VOD 파일로 소스를 변경할 수 있다.



4K 60P 시연



시연에 사용된 엘리멘탈 라이브 시리즈

4K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및 지원 포맷의 출시와 가격의 하락, 이를 비롯해 HDMI 2.0 역시 4K 60P를 지원하면서 이번 엘리멘탈의 4K 60P 실시간 인코더의 출시를 분명 HD를 넘어 4K를 지향하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014년은 4K 방송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차세대 방송으로 여겨졌던 UHDTV를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날도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주)하이픽셀**Blackmagic Production Camera 4K 데모 시연**

시연이 진행되었던 여의도 MBC 1층 로비

(주)하이픽셀이 지난 2월 18일 여의도 MBC 1층에서 블랙매직디자인의 4K 카메라 라인 Blackmagic Production Camera 4K(이하 BMPC 4K)의 데모를 시연했다. 이 날 하이픽셀의 이경준 과장은 MBC 관계자들이 작년 출시된 BMPC 4K의 성능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시연과 관련 설명을 하였고, 질문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여의도 MBC 1층 로비에는 삼성과 LG의 UHD TV가 전시되어 있는데, LG 84LM9600이 훌륭한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였다. 시연은 간단히 BMPC 4K의 ProRes 4K 레코딩을 6G-SDI로 출력하여 작년 IBC에서 공개된 ATEM 1M/E Production Studio 4K 스위처를 통해 HDMI 신호로 변환, 84인치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중요한 점은 한 가닥의 BNC 케이블을 이용해 6G-SDI의 영상 신호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된 BMPC 4K는 1.7Kg의 가벼운 무게와 함께 EF 마운트를 사용해 렌즈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 간단한 어댑터를 사용한 충전 등이 일단 장점으로 보여, 어느 곳이나 4K 촬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점이 첫인상이었다. 이밖에도 BMPC 4K는 글로벌 셔터를 사용한 수퍼 35 사이즈 센서 탑재, ProRes 422(HQ) 레코딩과 무손실 CinemaDNG RAW 지원, 저장매체로 SSD를 사용하여 타사 대비 레코드 비용의 감소와 확장성, 12스탑의 다이내믹레인지, 썬더볼트를 이용한 기타 장비 이용 등 전체적으로 가격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다. 가격은 바디 기준 현재 하이픽셀의 홈페이지에 4,138,000원으로 나와 있어, 캐논의 5D MarkⅢ의 비슷한 수준이다.



자유롭게 Camera 4K를 경험해 보는 참석자들



ATEM 1M/E Production Studio 4K

ATEM 1M/E Production Studio 4K는 넓은 범위 포맷의 카메라, 디스크레코더, 컴퓨터 같은 비디오 소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개 입력, 크로마 키, 트랜지션, 미디어 풀, 4개의 업스 트림 키어, 다운스트림 키어, 오디오 믹서, 멀티뷰, DVE, 스틱어 트랜지션, 3개의 AUX 출력까지 지원하며 6G-SDI 및 HDMI 4K 연결을 지원하는 점 등 블랙매직디자인이 야심차게 준비한 UHD 프로덕션 스위처이다.



SSD 슬롯 모습과 사용된 탐론 18-270mm 렌즈



6G-SDI로 출력하는 부분



저장 포맷과 프레임레이트, 색온도 등 실제 출력 화면



2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한 12V AC 어댑터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실촬영 모습

이 날 시연에서는 실질적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1층 로비 시연 후,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하여 스튜디오에서 실제 사용을 해보기도 하는 등 참석자들은 BMPC 4K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앞으로 다양한 촬영 현장에서의 실제 사용기가 공개된다면, BMPC 4K에 대한 대중적인 정보를 통해 타사의 제품들과 같이 4K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방송과기술에서는 시연을 이끌었던 하이픽셀의 이경준 과장을 통해 BMPC 4K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물어보았다.

Interview

이경준 (주)하이픽셀 과장

작년 출시된 BMPC 4K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 데모 시연이 늦어지게 되었는지? 현재는 수정이 되었는지?

처음 프로토 타입으로 나온 카메라는 말 그대로 프로토 타입의 카메라였다. 출시 이전에 모양만 보여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카메라라 많은 기능에 제약이 있었다. 출시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센서와 펌웨어의 매칭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해결되어 실제 제품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현재, 해외 사용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국내에만 늦게 출시가 된 것이 아니고 해외 역시 그 시기는 같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당 카메라를 사용한 공식적인 작품이나 사례는 없다.

소비자들은 가격인싼 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 하이픽셀 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다.

방송 장비는 비싸다는 인식을 가장 먼저 바꿔 놓은 회사가 블랙매직디자인이라 생각한다. 지금 중계현장에 나가보면 블랙매직디자인의 스위처와 솔루션을 사용해 중계를 하는 팀이 아주 많다. 좋은 가격으로 누구나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도해온 만큼, 이번 출시된 카메라 역시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 제한을 두지 않은 카메라이다.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공개된 가격으로 4K는 물론, 다빈치, 썬더볼트, 수퍼 35센서, 글로벌셔터, 6G-SDI 출력까지 제공하고 있는 Blackmagic Production Camera 4K는 영상 종사자라면 누구에게나, 아주 매력적인 카메라가 될 것이다.

BMPC 4K의 향후 펌웨어 및 업데이트에 대한 계획이 블랙매직 본사에서 있는지? 내용으로는?

기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무손실 압축 DNG RAW 코덱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일자는 공지되지 않았지만, 블랙매직디자인의 펌웨어 진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곧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현재 블랙매직디자인의 4K 지원 제품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블랙매직디자인의 4K 제품은 촬영부터 최종 에디팅까지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구성이 가능하도록 갖춰져 있다. BMPC 4K를 통한 촬영, 해당 신호를 광신호로 변경해 장거리 전송까지 가능케 해주는 Mini-Converter Optical Fiber 4K, 그리고 ATEM 4K 스위처를 통한 영상 믹싱, 모니터링용 SmartScope Duo 4K, 그리고 Hyperdeck Studio Pro를 통한 4K 레코딩, 다빈치 리졸브를 통한 에디팅 및 색보정까지. 그 외에 프로젝터 및 UHD TV와의 연결을 위한 Mini-Converter SDI to HDMI 4K 등 전과정을 아우르는 4K 장비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제 다가올 NAB에서도 더욱 간편해지고 스마트해진 4K 기기들을 선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하이픽셀의 2014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방송가의 화두는 4K다. 블랙매직디자인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4K 시장 확장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티브이로직의 신제품 30인치급 4K 모니터도 출시되어 여러모로 4K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4K는 물론 HD, Analog까지도 잘 지원하여, 고객분들과 더욱 깊게 소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후지쯔(주)

창립 40주년 맞아,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의 새로운 고객가치 실현



지난 2월 6일 한국후지쯔가 창립 40주년, 불혹의 나이를 맞았다. 1967년 국내 최초의 컴퓨터 'FACOM(파콤)222'를 한국생산성 본부에 도입하며 국내에 진출한 한국후지쯔는 1974년 2월 6일 서울 종로 합동통신회관(현 국제청 건물)에서 '화콤코리아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생산성 본부에 도입되었던 FACOM222의 도입은 당시 국내 컴퓨터 사업과 한국후지쯔 설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후지쯔 40년의 역사는 곧 한국IT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전 산화를 지원하며 함께 성장해 온 한국후지쯔는 1974년 포항제철 전산화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정보화를 담당하며 선진IT기술을 국내에 전파하였고 1980, 90년대 금융 및 유통산업의 부흥기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정보화 파트너로 성장하였다. 한국후지쯔는 일본 경제와 유사한 한국의 경제발전 트렌드에 발맞추어 본사의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산업 상황에 맞춰 최적의 IT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토털 솔루션·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IT 및 경영파트너로 성장해 왔으며 2010년에는 사회지속파트너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후지쯔 박제일 사장은 “외국계 기업으로 드물게 매년 신입사원을 선발하여 IT 각 분야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우리나라 IT 업계의 만형 역할을 해 왔고, 국내 최초의 컴퓨터 도입, 국내 최초의 한국어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시중은행 최초 보통예금 온라인 시스템 개발, 국내 최초의 병원시스템, 국내 최초의 기계번역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등 IT산업 발전사에 한 획을 그을만한 풍부한 역사를 자랑한다.”고 말하며 “한국후지쯔는 지난 40년의 역사를 밑거름으로 앞으로의 40년을 새롭게 열어나갈 것이다. 인간중심의 편리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100년 전통의 한국IT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